

봄 향기 가득한 경북안심여행~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빵지순례 명소가 된 하회블랑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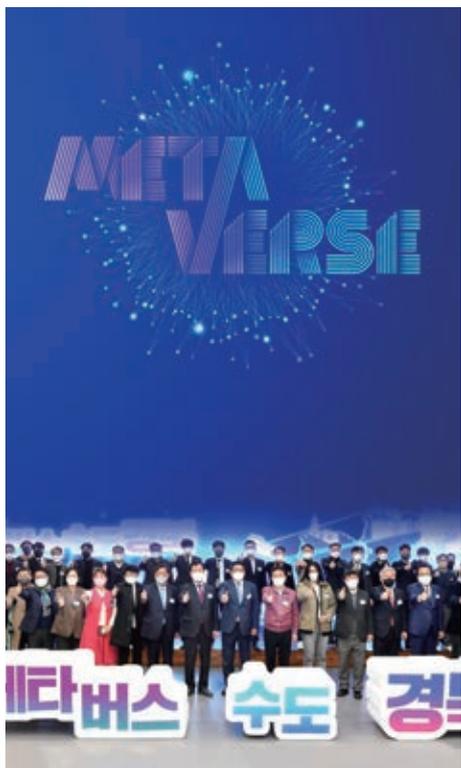


QR코드를 통해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2 Spring Vol. 429
Gyeongsangbuk-do Magazine



미래로 Jump

- 06 스케일업 경북 2022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북
- 08 에듀 경북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 10 매력 경북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메타버스 수도 경북
- 12 워킹 경북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떠나는 봄 여행
봄철에 즐기는 낭만 캠핑 여행
- 18 경북의 맛 봄을 머금은 경북 마나리의 맛과 향을 식탁에 올린다



커버스토리

안동 참마를 베이스로 만든 유럽식 빵으로
안동을 넘어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하회블랑제리'

행복으로 Jump

- 20 청년, 경북을 품다 안동 참마로 만든 빵
대한민국 대표 빵지순례가 되다
하회블랑제리 한마음 · 배지은 대표 부부
- 22 명품 명인 경상북도 최초 대한민국수산물명인 탄생
김명수 젓갈 김현목 대표
- 24 즐거움 플러스 경북 문화 양원역의 이야기를 담은
'기적'부터 인생 영화까지~



미래로

경주 보문정



대지에 넘쳐나는 봄.
약동하는 봄의 기운 가득
새로운 희망이 활짝 피어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경상북도.
당당한 호랑이 기상으로
미래를 향한 위대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JUMP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북

01

더 큰 대구·경북을 위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통, 관광 분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설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한다.

02

경북형 안심복지 환경 조성

숲(전) 주기 돌봄 체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첫만남 이용권」,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제로화」를 시행해 '경북형 완전 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03

민생 살리기, 행복경제 프로젝트

효과가 입증된 '공공 배달 앱', '온라인희망마켓' 같은 플랫폼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설환경개선과 같은 인프라 확충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1

투포트(Two - Port)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 신공항과 영일만 항을 축으로 투포트 경제권을 본격화한다.

10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대전환 프로젝트

제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비수도권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밸리를 구축해 가상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2022년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상북도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득 채워 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도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2022년 **'10 + 1' 역점시책**을 주목해 보자.

04

기술 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농촌으로 바꿀 계획이다. 올해는 3분야 6과제를 대학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한다.

05

대학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대학과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06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

경북형 글로벌 관광 콘텐츠 발굴과 입체적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경상북도의 문화유산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09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배터리, 헬프, 스마트물류)를 유치한 경상북도는 올해는 영천과 경산 등 남부권으로 확대해 경상북도 전역에 미래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08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해 경상북도 제조업의 新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여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도 지원해 침체된 제조업의 기를 살릴 예정이다.

07

동해안 탄소 중립 글로벌 허브

연 15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과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단지를 조성하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화를 위한 시험도 지속해 나간다.



포항시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



경주시 보문단지에 설치될 짚리안타워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경상북도는 매주 화요일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화공 굿모닝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알려주는 강좌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최근 열린 특강 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강연을 지면에 담았다.

화공 굿모닝 특강이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고 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4차산업혁명,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해 12월 140회를 넘겼다.

METAVERS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메타버스 수도 경북

2030년 1788조 원으로 성장할 메타버스 산업 시장.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를 목표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미 골조는 세우고 살을 붙여 나가고 있는 경상북도의 앞서가는 비전을 만나본다.

경상북도를 메타버스 신대륙으로~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소통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1500년 전 신라왕경을 메타버스 속에 구현해 경상북도를 메타버스 신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세계 유명 공항들을 메타버스 속 경상북도에 미리 구현해 실험한 후 가장 좋은 공항을 경상북도에 만들겠다는 것과 한국 대표 산업도시로 유

명했던 구미에는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같은 날 경상북도는 서울시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도는 협약에서 메타버스 사업 공유 및 기술 증진, 메타버스 정책 발굴, 반기별 협업회의 개최, 메타버스 기업, 기관, 대학 등 민간 차원 교류 지원, 협업 체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출범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40여 명의 메타버스 민간 전문가들과도 손을 잡았다. 경상북도는 2월 24일 도청에서 메타버스와 현실을 융합한 신개념 디지털 방식으로 '메타경북 정책자문단 출범 및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메타버스 관련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것으로, 50여 개 기업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의 본 캐릭터(본캐)는 새바람 행복경북, 부 캐릭터(부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메타경북)이라는 재미있는 메타버스 경북의 정의도 내려졌다.

이처럼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린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산업 육성, 메타버스 문화·관광 활성화,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존 조성 등 4대 분야 20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4대 분야 중점 과제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특화 서비스존 조성
크리에이터 양성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메타버스 관광 특구	메타버스 대구·경상북도 신공항 + 4대 한류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조성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시골벽적 AR 골목구석 상권 회복
메타버스 영재교육센터 구축	XR 디바이스 최적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세계유산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 구축
메타버스 전문학과 개설	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재난 대응 메타버스 체험 훈련장 운영
메타버스 글로벌 한글캠퍼스 구축	한글 AI 분당 조성		시·군별 메타버스 특화사업 연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떠나는 봄 여행

코로나19는 여행의 즐거움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안전하게 즐길 방법이 있다. 시끌벅적한 장소 대신 타인과 마주치지 않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 추천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소개한다.

비대면
안심 관광지 추천 **1**
의성 산운마을

영남 선비의 옛 정취를 만나는 고택촌

영남 선비들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운마을은 영천 이씨 집성촌인 고택촌이다. 2019년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도지사상을 받은 마을답게 금성산, 비봉산 아래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일품이다. 특히 학록정사, 운곡당, 소우당, 점우당 등 국가·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기옥과 40여 채의 고택이 자리해 중후하고 고풍스러운 멋을 자랑한다. 또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인 소우당의 안채 서쪽에 별도의 담장을 둘러 조성한 정원도 일품이다. 이번 주말 산운마을의 기품과 시원한 풍경을 만나러 의성으로 가보자.

📍 의성군 금성면 산운마을길 40-9

tip box

의성 산운마을 인근 볼거리

학록정사

학록정사는 영천 이씨 입향조인 학동 이광준을 추모하기 위해 영조 26년(1750)에 지었으며, 지방유형문화재 제242호로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인 팔작지붕과 문틀 등이 당시의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다.

산운생태공원

산운마을 바로 옆 옛 산운초등학교 터에 조성한 산운생태공원은 마을의 유래와 민속유물을 전시한 마을자료관과 야외 생태학습 및 공룡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떠나는 봄 여행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의성 산운마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 추천 **2**
의성 사촌전통마을

한옥, 나지막한 돌담길, 벽화거리 그리고 여유...

의성에는 안동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그에 못지않은 전통의 미를 간직한 양반마을이 있다. 한때는 기와지붕이 바다를 이루었다는 사촌마을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안동김씨, 풍산류씨들이 세거하는 유서 깊은 선비마을이다. 조선 중기의 명재상 서애 류성룡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600여 년 내력을 지닌 마을에는 아름다운 숲과 30채에 이르는 옛 한옥들이 즐비하다. 천연기념물인 사촌가로숲과 마을을 이어주는 나지막한 돌담길, 그림과 시, 역사가 있는 점곡 벽화거리 등을 여유롭게 즐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69



tip box

의성 사촌전통마을 인근 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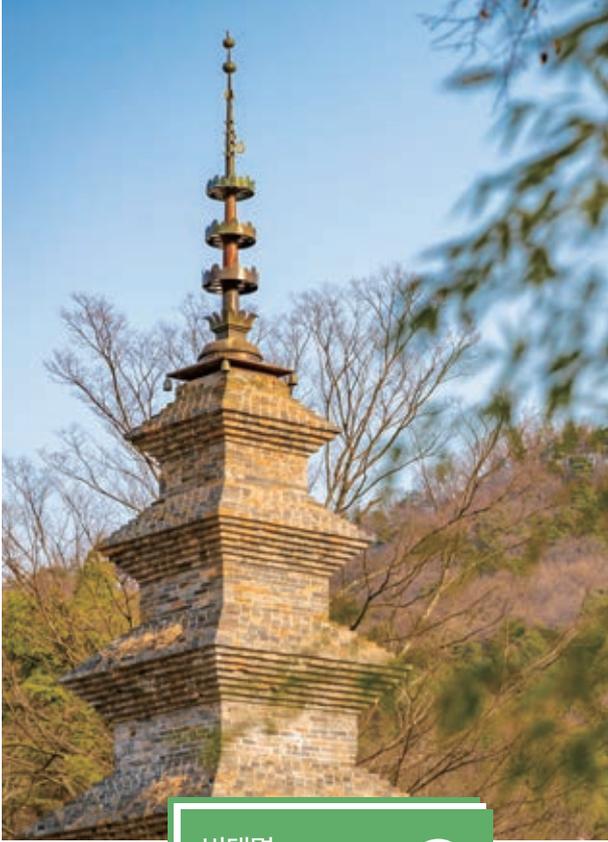
만취당

만취당은 김사원(金士元, 1539 ~ 1602)이 1579년(선조 12)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의 목조 건물로 2014년 보물 제 1825호로 지정돼 보수되었다.

의성 의병기념관

사촌전통마을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무신란, 한말 병신의병 등 수많은 역사 전환기 때마다 의성 의병의 중심지가 됐다. 의성군은 이를 기리기 위해 2016년 마을 입구에 '의성 의병기념관'을 건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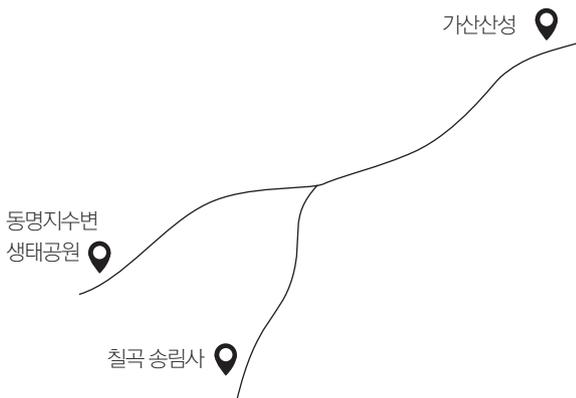


비대면
안심 관광지 추천 **3**
칠곡 송림사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천년고찰

팔공산 기슭에 고즈넉이 자리한 송림사는 544년 신라 진흥왕 5년에 진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탄 이후 중건되었고, 조선시대 때 왜군의 방화로 다시 소실되었다가 숙종 때 중창되었다. 우리나라 전탑 가운데 가장 세련된 것으로 꼽히는 오층전탑과 중후한 멋을 풍기는 대웅전, 향나무로 만든 거대한 목조석가여래삼존좌는 보물로 지정된 값진 문화재다. 또 인근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등 풍경도 아름다워 종교와 관계없이 마음을 정화하기에 최고의 여행지다.

☞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 73



tip box

칠곡 송림사 인근 볼거리

동명지수변생태공원

물 위에 뜨는 데크형 부잔교와 주탑 형식의 현수교가 설치돼 있어 탁 트인 수면을 바라보며 저수지 둘레를 산책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야간 조명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인증샷 명소로 꼽힌다.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135-3



칠곡 송림사와 동명지수변 생태공원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가산산성

송림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산산성은 내성, 외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유일한 3중성으로, 진남문 ~ 가산바위 길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트레킹 코스다.

☞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저수지 산책로

봄철에 즐기는 낭만 캠핑 여행

가자, 동해안으로 GO GO!

집 나가면 고생이라지만, 캠핑족들에게는 즐거움과 여유를 찾는 시간이다. 그래서일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붓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경상북도 내 캠핑장들의 인기가 뜨겁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캠핑장

○ 경주 나정고운모래 해변 오토캠핑장

차박의 성지로 불리던 경주 감포읍 나정고운모래해변 주차장이 단장을 마치고 오토캠핑장으로 문을 열었다. 해변 바로 옆 주차장(1만1200㎡)에 이동식 카라반 39면, 오토캠핑 48면이 조성됐고, 화장실과 샤워장도 조성돼 캠핑장으로서 면모를 갖췄다.

☎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976

○ 경주 오류캠핑장

오류캠핑장은 경주 감포읍 오류고아라해변 바로 앞 솔밭에 터를 잡고 있어 솔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일반야영장 8면과 카라반 28대가 있는데, 카라반이 많기 때문에 캠핑장비 없이 몸만 가도 딱 좋은 곳이다.

☎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382-7

🌐 <http://orcp.or.kr>

○ 영덕 고래볼해수욕장 국민야영장

병풍처럼 둘러선 솔밭을 끼고 명사 20리가 펼쳐진 자연경관은 전국 내로라하는 캠핑장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17만5000㎡에 이르는 드넓은 면적에 148동의 규모를 자랑하는 캠핑시설과 조형전망대, 해안루, 해안산책로, 샤워장, 취사장,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다.

☎ 영덕군 병곡면 고래볼로 68

🌐 stay.yd.go.kr

○ 울진 구산오토캠핑장

울진 구산오토캠핑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거나 카라반을 이용해 캠핑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몇 년 전 캠핑붐을 일으킨 TV 프로그램 '캠핑클럽'의 핑클 멤버들이 구산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해변가에 캠핑클럽 캠핑카를 세우고 잠을 청한 곳이기도 하다.

☎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70

🌐 www.93camp.kr



○ 울진 염전해변캠핑장

지난해 7월 개장한 울진 염전해변캠핑장은 깔끔하고 쾌적한 캠핑장이다. 캠핑장은 바다와 평행을 이루는 내부 중앙로를 기준으로 바다쪽은 오토캠핑장 구역으로 바다조망이 가능하고 추후 캠핑트레일러 4동도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캠핑장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600m 안에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생태공원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76



봄을 머금은 **경북** 미나리의 맛과 향을 식탁에 올리다

봄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 바로 미나리다. 향긋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봄철,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통한다. 봄을 머금은 미나리로 건강도 챙기고 잃어버린 입맛도 찾아보자.





○ 경북의 미나리

경북에는 청도를 비롯해 문경, 경주, 경산, 영천 등 미나리 재배 지역이 산재해 있다. 그중 미나리 하면 청도 한재(초현리, 음지리, 평양 1·2리, 상리 일대)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한재는 1980년대부터 미나리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해 화악산(932m)과 남산(851m) 사이 골짜기에 130여 농가가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다. 맑고 풍부한 지하수, 큰 일교차 등 미나리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속이 딱 찬 미나리가 자란다. 또 문경의 청정 온천수를 먹고 자란 돌미나리도 미식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환상의 짝궁 미나리와 삼겹살

미나리와 삼겹살의 궁합

미나리는 삼겹살과 궁합이 좋다. 갓 뜯은 미나리를 삼겹살에 싸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주고, 감칠맛은 돋워 준다. 이 호사도 4월까지만 누릴 수 있다. 그 후엔 너무 질겨져 생으로 먹기 까다롭다.



tip box

○ 청도 미나리와 주꾸미의 만남

주꾸미의 영양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봄철 주꾸미는 낙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최고의 건강 식재료이다.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성분표에 따르면, 주꾸미는 100g당 52kcal로 칼로리가 높지 않으며 수분(86.8g)과 단백질(10.8g)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재료

미나리 5대, 주꾸미 6 ~ 7마리, 새싹채소 200g, 빨간 파프리카 반 개, 노란 파프리카 반 개, 밀가루(2큰술), 소금(1작은술)



양념장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연겨자 1큰술, 후춧가루 1작은술



만들기

1.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자르고, 파프리카는 얇게 채 썰고, 새싹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2. 주꾸미는 눈, 코, 입을 제거해 밀가루(2큰술)를 넣어 바락 바락 손으로 주물러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끓는 물에 소금(1작은술)을 넣어 끓어오르면 주꾸미를 넣어 1분간 데치고 건져 찬물에 행군다.
4. 데친 주꾸미는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한 입 크기로 자른다.
5. 볼에 미나리, 주꾸미, 파프리카, 새싹채소, 겨자 양념장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 마무리한다.

안동 참마로 만든 빵
대한민국 대표 빵지순례가 되다

하회블랑제리



한마음 · 배지은 대표 부부

서울에서 나고 자란 도시 청년 부부가 안동에 터를 잡았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이지만, 매력적이었고 가능성이 보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창업 2년 만에 안동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핫플레이스로 키웠다. 경상북도청 신도시에 자리한 '하회블랑제리' 한마음, 배지은 부부 이야기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로 안동에 정착한 부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방송 제작 연출에 종사하다 커피와 요리에 관심이 생기면서 업을 전환한 한마음 대표(39)와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국내외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마케팅을 경험한 배지은 대표(36).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던 부부는 서로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품어 왔다. 그러던 부부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접하게 되면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2년간 80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과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로컬 푸드 기반 건강한 빵으로 전국적 인기

2020년 3월 '하회마을에 위치한 빵집'이라는 뜻의 '하회블랑제리'라는 간판을 내 걸었다. 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역의 로컬 푸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빵'이 되었으면 하는 다짐을 담은 것이다. 실제로 하회블랑제리에서 주력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안동 참마 도우로 만든 크루아상, 스콘, 타르트, 페이스트리 등 20여 종류의 유럽식 빵이다.

부부는 매일 아침 9시 오픈과 동시에 빵을 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나와 쉴 새 없이 준비한다. 건강하면서 식감이 좋고 맛있는 빵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인근 직장인과 동네 주민들이 찾던 동네 빵집은 어느새 안동에 여행 온 관광객이 꼭 들러야 할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빵지순례 명소가 된 하회블랑제리

부부는 그런 고객들을 보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안동의 다양한 숙박시설과 협의해 매일 아침 만든 신선한 빵과 커피를 룸서비스 형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식 패키지 사업'이다. 또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레스토랑과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 요리 콘텐츠 제작도 준비 중이다.

안동에서 희망을 꽃피운 부부는 말한다.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인재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인재들이 안동의 좋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회블랑제리

- 📍 안동시 풍천면 풍요4길 36-15, 1층
- 🕒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무
- ☎ 054-854-3615



경상북도 최초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탄생

김명수 젓갈

김현목 대표

경상북도 최초로 해양수산부
선정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이 탄생했다. 10호
명인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김명수 젓갈'의 김현목
대표(49)다. 기쁜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현목 대표를
경주시 천북면 공장에서
만났다.



이익보다 신뢰를 지킨 시간

일제 강점기, 젓갈 탱크를 이용해 멸치젓갈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일본인들이 해방 후 자국으로 돌아가자 주인 잃은 젓갈 탱크를 김현목 대표의 할아버지가 인수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젓갈 만드는 일은 김현목 대표 가문의 업이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젓갈 만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김현목 대표는 고사리손일 때부터 일을 도왔다. 그러다 22살 때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기 위해 뛰어들었다. 젓갈이 만들어지는 각 과정에 투입돼 일을 배웠고, 홍보나 판매일도 경험했다. 그중에 만난 고객의 말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한 고객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계속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젓갈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명수 젓갈’은 대기업에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대기업 담당자가 여러 번 찾아와 납품해 주길 간곡히 원했다. 그러나 아버지인 김명수 대표는 일언지하 거절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대대로 이어져 온 젓갈 맛을 지키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택한 것이다.

세계에서 사랑받을 젓갈



젓갈 담그는 데 있어 염도를 맞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아들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2000년 무렵부터 김현목 대표가 직접 염도를 맞추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염도가 맞지 않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힘들게 담근 탱크를 비워버리셨다. 절대 대충이라는 말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젓갈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고집스러운 것은 아버지를 빼놓았다. 여기에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비법이 더해지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젓갈이 탄생할 수 있었다. 비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기본을 지켜 젓갈을 만드는 것이다. 즉, 살이 오른 단단한 겨울 멸치에다 정제염을 사용해 20 ~ 24도의 염도로 맞춘 후 탱크에 담아 10℃ 이하 지하에서 최소 3년 이상 삭으면 감칠맛 나는 젓갈이 비로소 완성된다.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의 젓갈 담는 시기다. 30t 규모의 탱크 100여 개가 생산량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판매한 양만큼 다시 담가 양의 균형을 맞춘다. 탱크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묵힌 젓갈이 있다. 덕분에 어떤 젓갈과도



김명수 젓갈에서 생산되는 젓갈의 종류는 맑은 것과 특하반은 뽀뽀이 등 10여 가지에 달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한 감칠맛을 자랑한다. 특히 종갓집 김치에 독점납품하고 있는 뽀뽀이 액젓과 국 끓일 때나 니물 무칠 때, 스파게티 만들 때 등 어떤 요리에도 맛을 내는 맑은 액젓은 계절과 관계없이 주머니 들어온다. 김현목 대표는 안초비 같은 서양식 젓갈은 일상적인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젓갈도 이제 서서히 한식에서는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가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염도 계량화 등 좋은 젓갈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바다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경상북도에서 제2, 제3의 명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구입처

- ☉ 온라인 홈페이지(www.kimmyungsoo.co.kr), 네이버 스토어, 오픈마켓
- ☉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봉화 양원역 <출처: 경북나드리>

경북 봉화 양원역의 이야기를 담은 '기적'부터 인생 영화까지~

코로나19로 영화관에 가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영화관을 우리 집에 만들어 보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으로 최신 개봉작부터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까지 손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경상북도 봉화 양원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기적'을 비롯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인생 영화를 소개한다.



영화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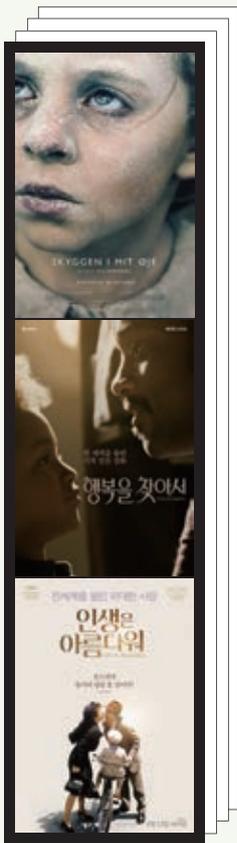
간이역 만들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영화 '기적'은 전국 최초의 민자역인 경상북도 봉화 양원역을 바탕으로 만든 2021년 작품이다.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차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주인공 '준경'(박정민)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영화가 개봉된 이후 조용했던 양원역에는 영화의 여운과 감동을 만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 관람가

양원역을 경유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양원역에는 지금도 기차가 오간다. 무궁화호가 하루 왕복 4회 서고 분천 ~ 양원 ~ 승부 ~ 철암을 시속 30km 속도로 오가는 관광열차인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도 지난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승부역과 산타마을로 알려진 분천역을 경유하니 가족여행, 연인여행으로 사랑받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보는 명작

폭격, 2022

‘폭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덴마크의 한 학교가 실수로 폭격의 표적이 되면서 벌어진 비극적인 실제 사건을 그린 영화다.

감독/ 올레 보르네달, 출연/ 알렉스 회그 안데르센, 카스파르 필립손

행복을 찾아서, 2006

자산관리회사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의 설립자 크리스 가드너의 굴곡 많은 인생을 영화화했다. 아버지의 진한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감독/ 가브리엘 무치노, 출연/ 윌 스미스

인생은 아름다워, 1997

이탈리아계 유대인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족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 출연/ 로베르토 베니니 등

조조래빗, 2020

상상친구 히틀러와 언제나 함께하는 10살 소년 조조가 유대인 소녀 엘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유쾌한 풍자 영화다.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 출연/ 토마신 맥켄지, 타이카 와이티티

노매드랜드, 2020

경제적 붕괴로 도시 전체가 무너진 후 홀로 남겨진 ‘편’. 낯선 길 위의 세상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편’은 노매드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감독/ 클로이 자오, 출연/ 프란시스 맥도맨드, 데이빗 스트리탄

네버렛 미고, 2010

카즈오 이시구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장기기증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의 서글픈 운명과 사랑을 먹빛으로 그려냈다.

감독/ 마크 로마넥, 출연/ 캐리 멀리건, 앤드류 가필드, 키이라 나이틀리

공감으로



고단해도 꿈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

동화보다 동화 같은 현실 속 자산벽화마을의 이야기다.

이제 다시 봄, 언 땅을 딛고 새 희망이 돋아나 자라고 있다.

JUMP



ㅁㅁ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날

경북의 누정

경상북도가 국내에 산재한 누정(樓亭·누각과 정자)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누정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누정의 활용 동력을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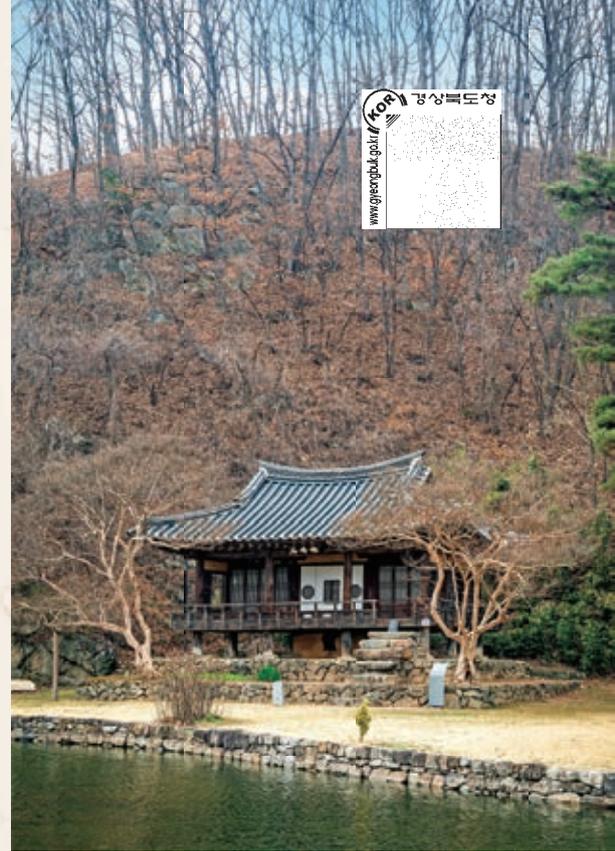
보물로 지정된 9곳의 누정을 보유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누정은 총 290건으로, 그중 경상북도에 102건이 밀집해 있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22건 가운데 9건(41%)을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경상북도는 누정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의 누정은 안동 입청각, 경주 관가정, 예천 아옹정, 김천 방초정, 봉화 한수정, 청송 찬경루, 안동 청원루, 안동 체화정, 경주 귀래정이다. 조선시대 누정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약과 절제로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들로 꼽힌다. 선비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이기도 하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기에 충분한 누정의 가치

경상북도는 누정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활용의 동력을 얻고 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역사·문화·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누정이 세계문화유산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지정 시 여러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7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한 뒤 8월쯤 누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 발족에 나선 다음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협의, 12월 호남지역 등 타 지역과의 협약 체결 후 등재신청 후보선정 등 후속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안동 체화정

TIP 보물로 지정된 경상북도의 누정

- 안동 입청각** 조선 중기에 지은 T자형 평면을 가진 정자형의 누각
- 경주 관가정** 양동마을에 위치한 고택인 관가정은 조선 중종 1514년 청백리 우재 손중돈이 건립
- 예천 아옹정** 1566년 권심언이 선친인 아옹 권의(1475 ~ 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
- 김천 방초정** 유학자 부호군 방초 이정복(1575 ~ 1637)이 사별한 부인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
- 봉화 한수정** 총재 권별이 세운 거연헌(居然軒)이라는 모막이 있던 자리에 손자인 권래가 건립한 정자
- 청송 찬경루** 1428년 청송부사 하담이 지은 정자로, 청송 심씨 소헌왕후의 시조묘가 있는 보광산을 우러러 찬미한다는 의미로 찬경루라 함.
- 안동 청원루** 1641년 청나라로 끌려갔던 김상헌이 6년 만에 돌아와 '청나라를 멀리한다'는 뜻으로 고쳐 지은 누각
- 안동 체화정** 영조 37년에 진사 이민적(1702 ~ 1763)이 학문을 닦기 위해 건립한 정자
- 경주 귀래정** 1755년 이철명의 후손이 건립한 육화정을 1938년 귀래정으로 이름 바꾼 정자

김천 방초정



전통주와 문화가 어우러진

경상북도가 전네는

한잔의 위로

명주의 본고장인 경상북도가 전통주를 소재로 한 문화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통주 산업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미 전통주와 지역 농특산 가공품을 조합한 '소소문', '이수', 등 패키지 브랜드를 출시했고 올해 9월에는 술 문화 축제를 개최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박재서 명인의 안동소주



잇주



이화주



잇주 패키지 상품인 부각

전통주와 지역콘텐츠의 특별한 만남

경상북도는 의성 누룩바위, 경주 포석정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통주 관련 스토리가 매우 풍부하다. 특히 국내 전통주 중 증류식 소주의 대표격인 '안동소주', 신라 궁중 비주로 화랑의 기상이 깃든 '경주 교동법주' 등 역사를 자랑하는 명주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또 전통주 제조법이 기록된 '음식디미방', '수운잡방'(需雲雜方), '온주법'(蘊酒法), '음식절조'(飲食節造) 등 4권의 조리서가 전해져 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통주를 식품으로의 유통 판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행과 음식이라는 테마를 엮은 테마관광상품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식품·여행·유통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1월 첫 상품으로 전통주와 기차 여행을 결합한 '홀홀술술'을 출시한 바 있다.

경북 전통주와 경북 전통 안주의 합작

경상북도는 전통주와 안주를 패키지로 묶은 '소소문'과 '잇주' 2종의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았다. 소소문은 박재서 명인의 안동소주에 소고기 육포, 문어 보푸라기를 안주로 하는 패키지로, 안동 수출당 윤은숙 종부의 레시피 참여로 캐주얼하면서도 전통의 깊은 맛을 품고 있다. 잇주는 배꽃이 필 무렵에 빛나는 이화주와 지역 농특산물 부각을 안주로 하는 패키지 브랜드로, 바삭한 부각과 떠먹는 막걸리로 유명한 저도수 이화주가 어우러져 특별한 식음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들 상품이 기획 단계부터 편의점, 온라인 마켓 등 온오프라인 판로가 확보돼 있어 전통주 판매 실적이 주민주업체의 매출로 직결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직접적이며 크고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전통주 테마 팸투어, 고택과 함께하는 전통주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Tip

전통과 현대의 술 문화를 만나는 '제1회 경상북도 술 문화 축제'

일시 2022년 9월 중 장소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내용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민속주를 비롯해 쌀막걸리, 오미자막걸리, 대추막걸리 등 140여 종의 술을 전시·체험·판매, 다양한 문화·공연·학술 행사 등



CORONA BLUE

공감으로 Jump 슬기로운 취미생활

나를 위한 취미생활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코로나19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톡톡' 짚어 소개한다.

DIY 그리기, 우드카빙 등 다양한 취미의 세계



미리 그려진 도안에 숫자에 맞는 물감을 칠하는 ‘DIY 명화·유화 그리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완성했을 때의 만족도가 커서 인기가 높다. 고흐·마티스 등 유명 명화부터 디즈니, 해리포터까지 도안이 매우 다양하다. 내가 원하는 도안이 있으면 직접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민화 그리기도 인기 물이 중이다. 민화 키트는 전통 민화 도안과 동양화 물감, 붓, 먹물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민화를 그릴 수 있다.

손재주가 조금 더 있다면 ‘우드카빙’에 도전해 보길 추천한다. 나무를 조각해 간단한 주방도구부터 작품까지 만드는 우드카빙은 처음에는 공방이나 작업실에서 배운 다음 집에서 톱툰이 작업하면 작은 소품을 완성할 수 있다.

‘보석 십자수’라는 새로운 형태의 십자수도 즐기는 이들이 많다. 흔히 ‘십자수’ 하면 오색 실을 엮어 형태를 만드는 자수를 생각하지만, 보석 십자수는 보석을 붙여 십자수처럼 그림을 완성하는 공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도안에 맞춰 색깔별로 보석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예쁜 그림이 완성된다.

이외에도 식물을 활용해 집안을 정원처럼 가꾸는 ‘홈 가드닝(가정 원예·Home gardening)’을 취미로 삼은 사람도 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기정화와 더불어 식물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감을 받으려는 의미도 있다.

우드카빙



DIY 그리기

이제, 취미도 구독하는 시대!



각종 취미 교육 동영상이 정기구독상품으로 등장했다.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는 입점 작가들이 직접 교육하는 동영상 강의인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목공, 금속, 유리 등 각종 공예부터 미술, 요리, 플라워, 뷰티 등 28개 분야의 150여 개 다양한 클래스를 월정액을 내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의 키트 전문 서비스인 ‘101BOX(101박스)’는 ‘세상 모든 취미를 담는다’라는 슬로건 하에 세상의 많고 다양한 취미를 보다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키트를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공예, 드로잉, 베이킹, 가드닝, 키즈 등 현재 5000종이 넘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다.

민화그리기





포항경주공항, 새 이름 새 희망으로 힘찬 날갯짓

경상북도는 오는 7월 14일부터 바뀌는 포항공항의 새 이름 '포항경주공항'의 힘찬 새 출발을 위해 포항 - 김포노선을 3월 27일부터 1일 2회 왕복으로 증편하고, 증편 일정에 맞춰 포항경주공항 -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 보문단지 간 노선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은 3월 21일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참석해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 나선다

경상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우편발송도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디자인제작 지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디자인제작 지원 사업'에 3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세일페스타에 입점 기업 또는 입점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신청 기간은 사업공고일인 1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상시 모집(200개사)할 예정이다.



사찰 불상 및 불화 등 5건 문화재로 지정

경상북도는 3월 21일 개최된 도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통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건(구미 대둔사 아미타불회도, 문경 봉암사 상봉대사비, 문경 대승사 윤필암 후불도)과 문화재자료 2건(경주 남산 탐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 예천 명봉사 목조보살좌상)을 지정했다.



경상북도1호 벼품종 '다솜쌀' 종자 보급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자체 육성한 '다솜쌀' 우량종자 7.3t을 지역 13개 시군농업기술센터로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10개 시군, 2.7t 보급에 비해 2.7배가량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상북도지역 산림조합, 울진 산불진화 적재적소 투입 큰 활약

울진 산불현장에서 경북지역 산림조합 임직원이 산불진화에 다양하게 투입돼 펼친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 산림조합은 지난 3월 6일 산불현장에 진화장비를 갖춘 임직원 18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추후 산림피해조사에도 힘겨움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 인력과 드론 등 장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생산 지원

경상북도는 3월 1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흥해읍)에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준공식을 가졌다. 센터는 앞으로 완전 밀폐형 식물재배시설, 우수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준(KvGMP) 백신생산시설, 비임상 효능 평가시설,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통해 식물기반 바이오의약품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모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4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지원금은 총 7억 원으로 과제당 1.75억 원 내외로 총 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한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 (<https://gcub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이소TV - 전국 경북자랑, 유튜브 공모전 개최

경상북도가 '전국 경북자랑!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독자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참가 대상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경상북도는 총 11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울릉도 향한 하늘길 15% 열렸다

경상북도는 3월 2일부터 3일간 울릉도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울릉공항은 울릉읍 사동리와 남양리 일원에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904억 원을 투입해 1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이 조성된다. 점검결과 현재 약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전 시군 노후 상수도 정비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환경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인 ‘노후상수도 정비 추가사업’의 정수장 분야에 포항, 영주, 경산, 울진이 최종 선정돼 2026년까지 1020억 원(국비 5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사업선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정책과 기반시설 관리체계 대 전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3월 8일 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앞으로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가축 발생 시 자체 정밀진단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2월 7일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상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첫출발... 전입 공무원 임용장 수여

경상북도의회는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경상북도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출발을 알렸다.



울진 산불 의연금 500만 원 전달

경상북도의회가 3월 17일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의연금 500만 원을 전달해 따뜻한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의연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독도 도발 망언 규탄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상이 1월 17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 망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사검증 실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9일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2월 10일 문경 라마다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원전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1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진료비 무료지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제328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일반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 따른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통과했다.



포항지역 경상북도의원, 포스코홀딩스 포항설립 서한문 전달

경상북도의회 포항지역 도의원 8명은 1월 28일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포스코센터를 방문해 앞으로 포스코그룹을 지배하게 될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호국원 참배로 2022년 새해 힘찬 출발

경상북도의회는 1월 3일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엄숙한 시간을 가졌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3월 24일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의원아카데미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3월 24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의원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업무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3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2년 새마을운동 주요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트렌드 따라잡기

2021년은 ‘건강’, ‘복고’ 그리고 ‘MZ세대’의 한 해였다. 그렇다면 2022년의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일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혹은 머지않아 자리 잡게 될 올해 트렌드를 살펴본다.



패션 Y2K

올해 패션 트렌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사이 유행했던 ‘Y2K(20세기 말) 패션’이 부상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더욱 화려한 패션을 찾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몸매가 드러나는 이른바 배꼽티, 골반에 걸치는 골반바지, 1990년대 유행했던 가죽 재킷, 청재킷 등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옷들이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출판 다정함

혐오와 팬데믹의 시대, 출판 시장에서 새로운 키워드는 ‘다정함’이다. 올해 초 출간된 ‘다정함의 과학’(더퀘스트)은 미국 컬럼비아대 정신의학 교수 켈리 하딩의 저서로, 사랑과 우정 같은 사회적 요인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출간 2주 만에 중쇄를 찍었다. 김훈비의 ‘다정소감’(안온박스), 명상·요가 전문가 디아의 ‘나에게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카시오페아)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경제 텐포켓

저출산 속 한 자녀에게 집중하는 텐포켓 현상(1명의 아이에게 부모는 물론 양가 조부모와 친척, 심지어 부모의 친구까지 대략 10여 명이 지갑을 연다는 신조어)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유아동용품 시장 중에도 명품 의류 및 지속가능성 가치를 더한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의 성장세가 돋보적이다.

Tip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용어

MZ세대

MZ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자인 Z세대를 합한 세대로 1955년에서 1964년 출생인 베이비부머와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태어난 X세대 다음 세대를 말한다.

NFT

NFT(Non-Fungible Token)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동영상·이미지·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일반 동영상, 이미지 파일과 달리 복제가 불가능해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경주 보문정

4 April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산 반곡지

5 May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절취선 ✂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나이 _____ 세(남/여)

주소 _____

□□□□□

※ 구독 신청(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함) □

주소 변경 □ 신규 □

(□ 체크해 주세요)

새바람
행복경북

절취선 ✂



받는 사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정대로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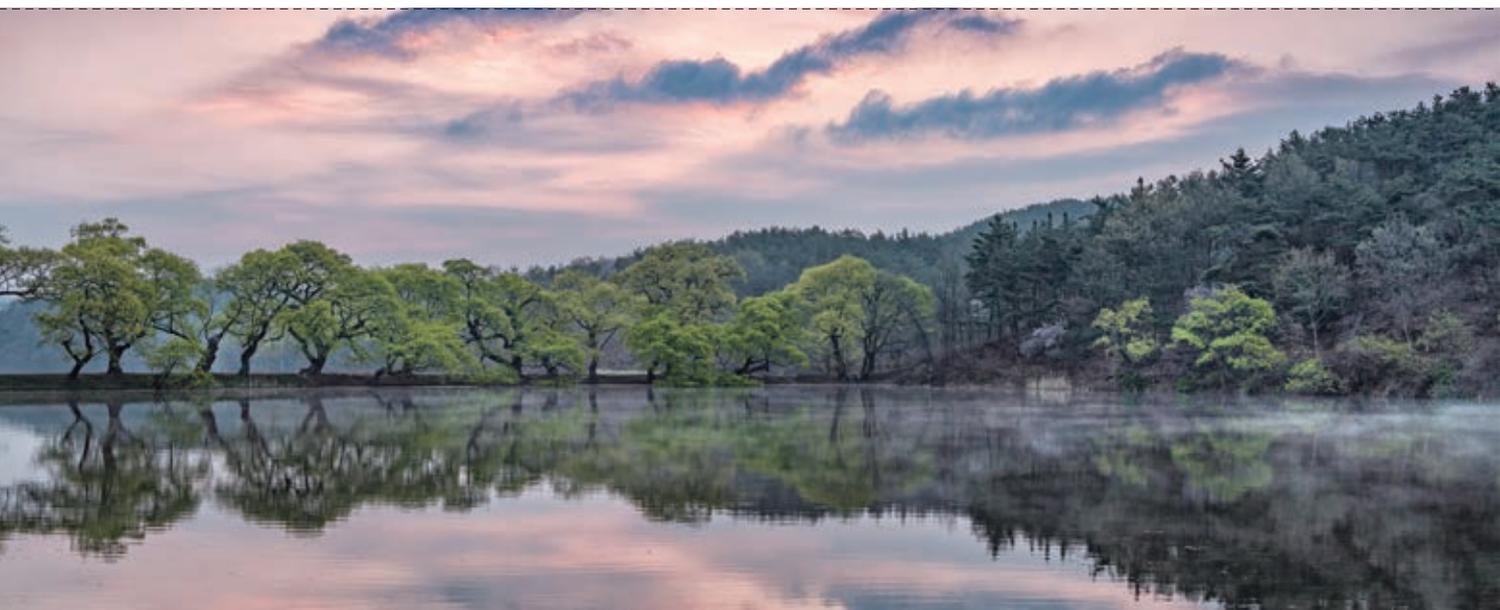
경북도청 대변인실

새바람 행복경북 담당자 앞

36759



4 April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❶ '새바람 행복경북'을 읽고 난 소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❷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새바람 행복경북'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기사 내용 편집·디자인 부수 확대·배부 방식 종이 질·책 크기 기타()

❹ 나만 알기 아까운 내 고장의 맛과 멋을 추천해 주세요.

❺ '새바람 행복경북'을 접하게 된 사연(장소)은?

관공서 방문 지인 홈페이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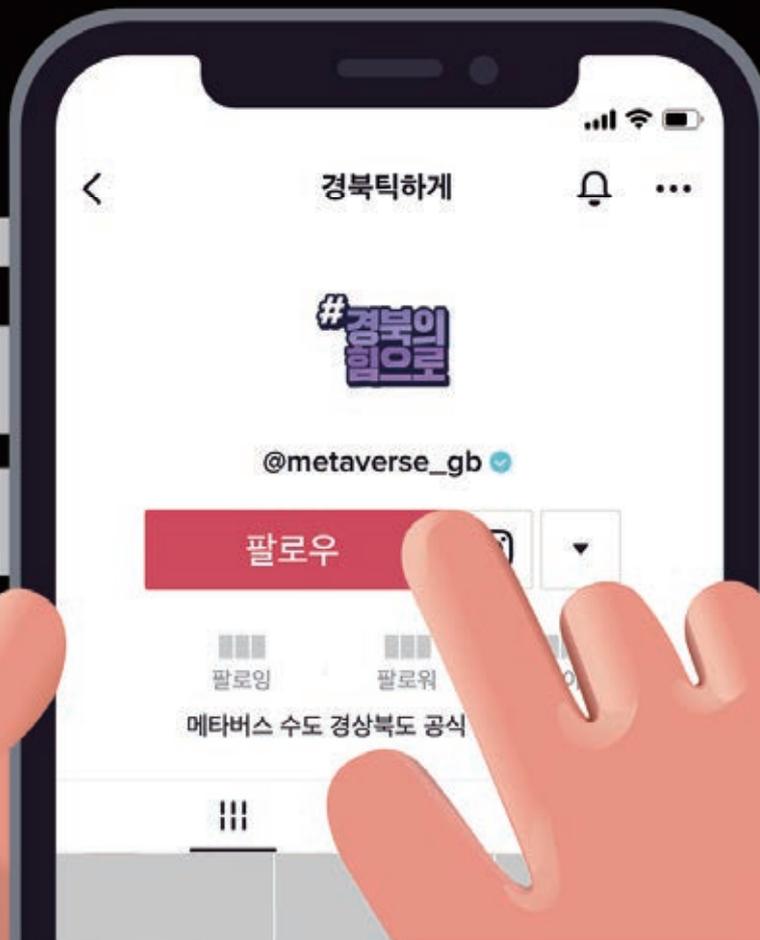


카메라로 QR코드 확인

틱톡계의 핫기! 경상북도 틱톡

경북틱하게

@metaverse_gb



새바람 행복 경북!



청년, 경북과 통하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기가 이뤄낸 안리단길과 청년예술촌거리 등
경북 곳곳이 젊은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청년·결혼·육아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준비된 경북은 꿈의 터전으로 통합니다.
가능성으로 활짝 열린 꿈의 터전에서 저마다 신명나게 에너지를
뽐내며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갑니다.